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평화세미나 : 평화위원회가 주관하는 평화세미나가 오늘 오후 2:30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기지촌 할머니, 그들에게 남은 것은?>, 강사는 우순덕 소장(햇살사회복지회)입니다.

가을소풍 : 다음 주일(18일)에 전교인이 가을소풍을 갑니다. 장소는 춘천 유정마을(김유정역 일대)입니다. 아침 9:30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용산역에서 직통전철(전세)을 타고 이동합니다. 아직 참가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신청해주세요.

신앙실천 : 아름다운 것들 앞에서 멈추어 서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다음 주 설교 본문
빌 2:1~4

오늘 식당 봉사 : 이현순 정현선 정영례 양정화 박진숙 임옥기 추현영 유병선
다음 주 식당봉사 : (없음)
오늘설거지봉사 : 3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없음)
커피 판매 봉사 : 2남선교회
떡 대 접 : 이영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성령강림 후 제20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9. 하늘에 가득 찬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날을 베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붉게 변해가는 가을산과 누렇게 변해가는 가을들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분주한 일상과 손바닥만 한 화면에 매몰되어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광활한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가을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역사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편향된 하나의 시각만을 강요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지난날을 반성하며 바른길을 모색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렘31:13,14 인도자
- ♣ 교 독 문 51. 시편118편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대표기도 한완식 장로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397. 주 사랑 안에 살면 다 함께
- ♣ 성경봉독 욥23:1-9 히4:12-16 막10:17-31 배동준 선생
 눅 11:24-26 이성범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주가 나를 이끄시네 찬양대
- 말 씬 I. 지키고 가꾸어야 할 것 김재흥 목사
 II. 하나님을 모심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곽정자	구명자	국지연	권미정	권혁순	박해경	경광일	김광일	이부용	김순
김기석	김희우	김나름	김도현	김명희	김용대	박정숙	김정길	김정길	최숙화	김정민
이혜령	김종락	박영신	김중수	이순정	김지윤	정영우	김지현	김지현	김철수	유영남
김필순	김혜영	마은겸	문복순	박다니엘	박미연	박상욱	박숙미	박숙미	박시내	박예림
박종철	임옥기	배재경	이수정	백요현	백성래	서원금	서정순	송인선	송현선	송형운
하미림	안종일	정현주	안현숙	양상철	박재란	오자영	서원금	최현선	최현선	유금주
유중희	윤영미	이건우	이계숙	이계선	이소숙	이광석	이광석	이국현	이국현	김민화
이근식	신영신	이민범	공재량	이성범	권현숙	이명희	송상경	이명희	송상경	이우상
이계월	이은실	이재문	이정은	이한림	김명희	임명희	송상경	임명희	송상경	최현옥
임호성	장영숙	장재영	김재영	정두리	정복순	정연희	정연희	김재광	김재광	정원석
김현영	정중삼	정현모	조경자	조관행	조훈식	조문규	조문규	조병무	조병무	송양진
조지연	최옥자	한규숙	한상경	한상의	정영선	한완식	한완식	허준호	허준호	홍소형
홍춘숙	무명									

감사헌금

국영주	권미정	김명희	김승욱	진혜정	김정진	김혜정	김태정	김희우	박재영
이현정	박창운	허정윤	안정준	이건우	이계숙	이광재	이유일	김미희	이자애
이정은	임광호	김혜라	정두리	정선희	조혜	최금순	최숙화	김정길	한상의
정영선	홍순구	안홍숙	무명9						

녹색꿈헌금

김재흥 김정민 이혜령 김향자 장영숙 장원호 박성희 최다미 최보미 최옥자 무명8

생일감사헌금 김범윤 신영신 한지혜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백혜숙	박성희	백혜숙	박성희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최경미	임정자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박경원	이명희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박홍재	백묘현
시온	권미숙	박미영	심삼순	배삼순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심삼순	이봉옥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심삼순	윤수진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심삼순	안홍숙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심삼순	김경혜
다메섹	박혜경	박혜경	김민화	정현선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복		

2015 청파

기차로 떠나는 전교인 가을소풍

일시 : 2015년 10월 18일

장소 : 춘천 신동면 유정마을 일대

출발 : 10월 18일 오전 11시. 용산역에서 전용 열차를 타고

회비 : 1인당 10,000원

일정 : (날씨에 따라서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오전 11:00 용산역에서 출발

12:00 김유정역에 도착

식사 (닭갈비와 막국수)

오후 1:30 여는 모임 (금병초등학교 운동장)

2:00 각종 프로그램

- 레일바이크 타기 (김유정역에서 강촌역까지)

- 신분증 지참, 1인당 5,000원 회비 추가

- 축구/족구 (금병초등학교 운동장 이용)

- 김유정 문학관 (문학관 내부 안내 프로그램)

- 유정마을 뒷산 걷기 (김유정 소설 이야기 길)

- 자전거 타기 (본인 자전거를 가지고 가야 함)

- 온전한 자유시간

오후 4:00 금병초등학교에 집합 및 김유정역으로 이동

오후 4:30 용산역으로 출발

오후 5:30 용산역에 도착

준비물 : 운동화, 모자, 따뜻한 옷 등

(간식은 안 챙기셔도 됩니다. 열차 안에서 이동카트 운영)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새교우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부질없고 그릇된 것들이라면 내쫓으십시오.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영이신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다 함께:	아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헛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비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평화 세미나 / 우순덕 소장	저녁성서연구 / 강의: 신진식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인걸 장로	이선화 집사

10월	영접위원	박홍재 허호범 이성범 박성실 정경례 이은주
	헌금위원	하현철 강순배

마음으로 읽는 글

지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음악에 압도되어 버리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음악이 너무 가슴에 사무쳐 볼륨을 최대한 높여 놓고
그 음악에 무릎 꿇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깃대 위에 백기를 달아
노래 앞에 투항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음악에 행복하고 처분만 기다리고 싶은 저녁이 있습니다.
지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너무 발버둥치며 살아왔습니다.
너무 긴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는 날도 있어야 합니다.
비굴하지 않게 살아야 하지만 지지 않으려고만 하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제 피붙이한테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면 좀 어떻습니까./ 사람 사는 일이 이겼다 졌다 하면서 사는 건데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강박이/우리를 붙들고 있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강박에서 나를 풀어 주고 싶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사랑에 지고 싶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음악에 지고 싶습니다./
돈이 아니라/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풍경에 무릎 꿇고 싶습니다.
선연하게 빛나는 초사흘 달에게 행복하고 싶습니다.
침엽수 사이로 뜨는 초사흘 달,/ 그 옆을 따르는 별의 무리에 섞여
나도 달의 부하,/ 별의 졸병이 되어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낮 날 같이 푸른 달이 시키는 대로 낙엽송 뒤에 가 줄 서고 싶습니다.
거기서 별들을 따라 밤하늘에 달배, 별배를 띄우고 별에 매달려
아주 천천히 떠나는 여행길에 따라가고 싶습니다.
사랑에 압도당하고 싶습니다.
눈이 부시는 사랑,/ 가슴이 벅차 거기서 정지해 버리는 사랑,
그런 사랑에 무릎 꿇고 싶습니다./
진눈깨비 같은 눈물을 뿌리며/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눈발에 포위당하고 싶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는 눈 속에 갇히고 싶습니다.
허벅지까지 쌓인 눈 속에 고립되고 싶습니다.

구조신호를 기다리며 눈 속에 파묻혀 있고 싶습니다./
나는 그동안 알맞게 익기만을 기다리는 빵이었습니다.
적당한 온도에서 구워지기만을 기다리는/ 가마 속의 그릇이었습니다./
알맞고 적당한 온도에 길들여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븐 같은 공간,/ 가마 같은 답답한 세상에 갇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산산조각 깨지는 날도 있어야 합니다./ 버림받는 날도 있어야 합니다./
수없이 깨지지 않고,/ 망치에 얻어맞아 버려지지 않고
어떻게 품격 있는 도자기가 된단 말입니까.
접시 하나도 한계온도까지 갔다 오고 나서야 온전한 그릇이 됩니다./
나는 거기까지 갔을까요.
도전하는 마음을 슬그머니 버리고 살아온 건 아닌지요.
적당히 얻은 뒤부터는 나를 방어하는 일에만 길들여진 건 아닌지요.
처음 가졌던 마음을 숨겨 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배고프고 막막하던 때 내가 했던 약속을 버린 건 아닌지요.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려고만 하고
그럴듯하게 변명하는 기술만 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정직하고 순수했던 눈빛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적당한 행복의 품에 갇혀 길들여지면서
그것들을 잃어 가고 있다면 껌질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했던 곳이 그 의자,
그 안방이 아니었다면/ 털고 일어서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퀘도를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까.
제 목청의 가장 높은 소리를 넘어서지 않고
어떻게 득음할 수 있습니까./
소리의 끝을 넘어가고자 피 터지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생애 몇 번, 아니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목소리가 폭포를 넘어가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안전선 안에만 서 있었습니다.
그 안온함에 길들여진 채 안심하던 내 발걸음,
그 안도하는 표정과 웃음을 버리는 날이 하루쯤은 있어야 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 사무치는 음악,
뽕뽕 언 별들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